

34 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3 강.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의 자선 경매 정윤아

일시: 2025 년 4 월 17 일 10:30-12:00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및 녹음할 수 없습니다.

경매 내용

일시: 크리스티 뉴욕, 2013 년 5 월 13 일

자선 경매 제목: The 11th Hour

출품작 수: 총 33 점

기부금 총액: \$38,827,000 달러

자선 경매 주요 미술가 및 대표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이 기획한 자선 경매로 디카프리오의 소장품 및 미술가들의 작품 기증으로 총 33 점이 출품되어 33 점이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13 점이 당시 미술가의 최고 세계 경매 기록을 달성되었고 9 개의 예술 작품이 100 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었으며, 많은 작품이 사전 판매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이 1998 년부터 작업해온 환경 문제에 사용되었습니다. 호랑이 보호에 관심이 많은 한 기부자는 호랑이 그림 3 점(Zeng Fanzhi, Robert Longo, Takashi Murakami)의 가격에 맞춰 미화 500 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외 다른 관대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은 총 50 만 달러에 달하여 이 자선 경매를 통해 환경 단체에 기부된 금액은 총 3,880 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은 15 년 동안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지구상의 마지막 야생 지역, 그곳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그리고 복지가 그들에게 달려 있는 주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보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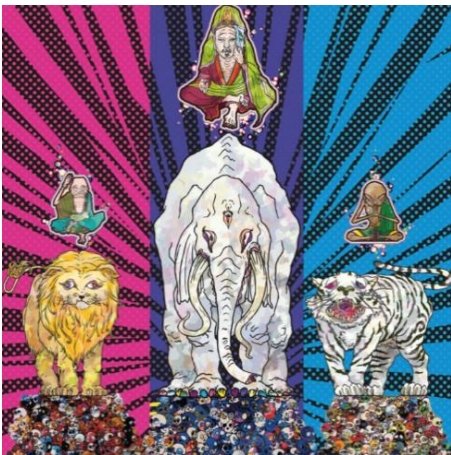
주요 기증작



로버트 롱고

Robert Longo (b. 1953)
Untitled (Leo)
signed and dated 'Robert Longo 2013' (lower right)
charcoal on paper
96 x 70 in. (243.8 x 177.8 cm.)
Executed i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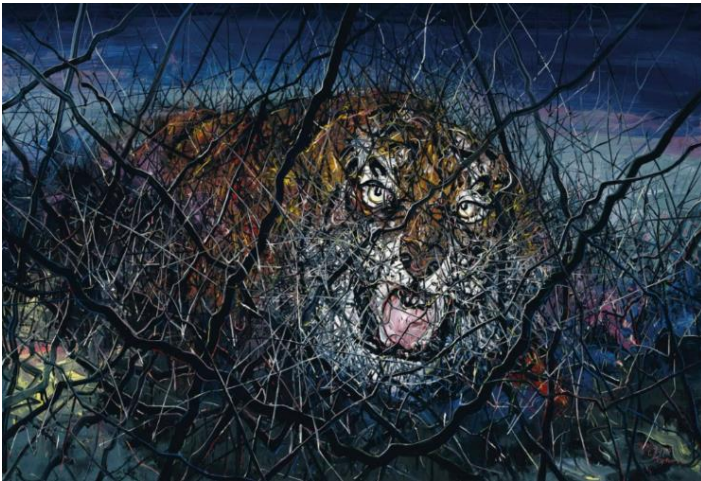
로버트 롱고(1953년 1월 7일 출생)는 미국 출신의 미술가이자 영화 제작자, 사진작가, 음악가입니다. 롱고는 1980년대에 도시 남자(Men in the Cities) 드로잉과 프린트 시리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 시리즈는 정장을 차려 입은 남녀가 뒤틀린 감정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 사회, 정치 등 당대를 반영하는 날카로운 시각의 작품을 발표해왔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Takashi Murakami (b. 1962)
Mononoke
signed 'Takashi Murakami' (on the reverse)
acrylic on canvas
59 x 59 in. (150 x 150 cm.)
Painted in 2013. (3)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 1962년 2월 1일 출생)는 일본의 현대 예술가입니다. 그는 파인 아트와 패션, 애니메이션 등 상업적인 대중 매체에서 작업하며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일본 예술 전통의 미적 특성과 전후 일본 문화의 본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힙합 가수들의 앨범 커버를 디자인한 바 있고, 고급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과의 두 차례에 걸친 협업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 판츠

Zeng Fanzhi (b. 1964)

The Tiger

oil on canvas

94 7/8 x 137 5/8 in. (241 x 350 cm.)

Painted in 2011.

정 판츠(曾梵志, 1964 년 출생)는 베이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 현대 예술가입니다. 정 판츠의 작품은 감정적 직접성, 직관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감각, 신중하게 조정된 표현주의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문화혁명을 겪은 중국의 사회상을 돈을 목적으로 헌혈을 하는 가난한 인민들의 실태를 묘사한 병원 연작에서부터 마스크, 숲, 초상화 연작 등 다양한 주제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운아

현재 크리스티 홍콩 부사장(Vice President)이자 20/21 세기 미술 전문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재직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미학과 연구과정을 거쳐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예술경영 석사를 취득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에서 제프리 다이치 갤러리, 매체예술센터 등에서 근무하였고, 귀국 후 서울에서 큐레이터, 아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뉴욕 미술의 발견』(2003), 『미술시장의 유혹』(2007) 등이 있다.